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옥수수

전반적으로 수출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 달까지만 해도 C&F톤당 140불 가까이 형성되던 미국산 옥수수 시세는 최근에 와서 13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산 옥수수 시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내 옥수수 식부작업이 양호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5월 19일 현재 전 미국의 주요생산지역 평균 식부율은 90%로 보기도문 식부 진전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식부 진전율은 64%였고 과거 5개년 평균 식부 진전율은 70%였다. 특히 콘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전개되는 기후 조건은 옥수수 식부작업을 촉진시켜주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산 옥수수 시세를 약세로 몰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미국의 농업정책이다. 즉 Export PIK라 불리는 수출 촉진책으로 CCC(미국의 상품신용공사)가 가지고 있는 곡물채고를 수출업자에게 분담한다는 내용이 최근 업계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의 농업 문제에 정통한 Dole 상원위원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미국 곡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곡물수출 업자의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현물을 CCC가 bonus로 공여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Export Bonus Program이라고도 불리며 점차 낮추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6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곡물 수입국

은 물론, 수출국들이 이 Bonus Program 으로 인해 다소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이외의 타수출국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에서도 곡물시세를 하락시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후 곡물시세는 안정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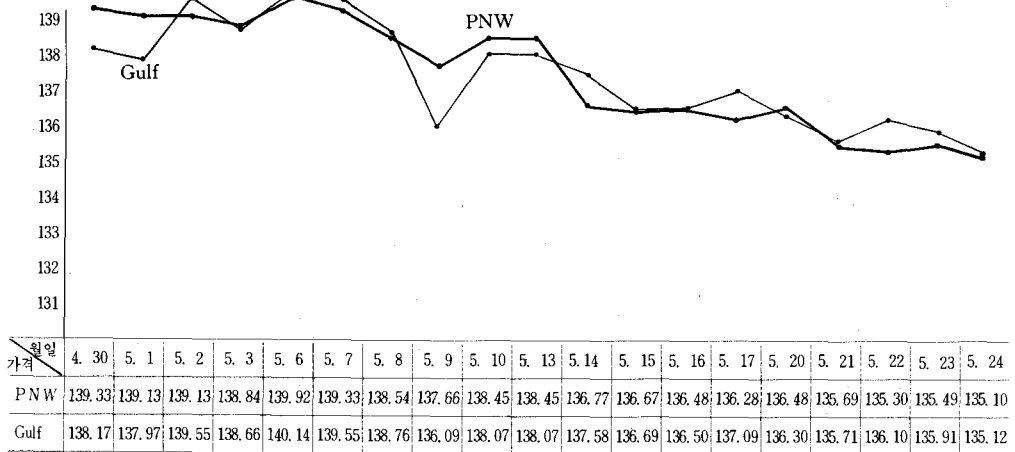
한편 중공산 옥수수는 지난 4월 15일부로 수출창구가 일원화된 이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Delayed Delivery로 알려져 왔던 일부 PRC 옥수수가 Non Delivery로 판명됨에 따라 앞으로 PRC 옥수수 교역이 메릿트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PRC 옥수수가 실수요자에 의해 구매되고 있는데 구매가격은 미국산 옥수수 가격의 2~3불을 밑돌고 있는 시세이다.

대두 및 대두박

미국산 대두와 대두박시세 역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두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C&F톤당 250불선 가까이에서 시세가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240불선 가까이 떨어졌고, 대두박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60~165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산 대두시세의 약세 역시 미국산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식부작

1. 옥수수시세



업에 있다. 즉 5월 19일 현재 미농무성(USDA)에 의해 발표된 대두식부 진전상황을 보면 전미국 평균은 34%로, 지난해의 14%에 비해 2배 이상이나 호조를 보이고 있고, 과거 5년평균인 23%에 비해서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대두박시세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대두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재고수준이 대두제품에 대한 수입국들의 수요감소로 인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곡물

한편 기타곡물중 수수시세는 남반구 수수의 작황부조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호주산, 아르헨티나산이 C&F 가격으로 톤당 130불 수준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금년도 작황이 부진했고, 아르헨티나는 5만톤규모 수출용 엘리베이터까지 폭발해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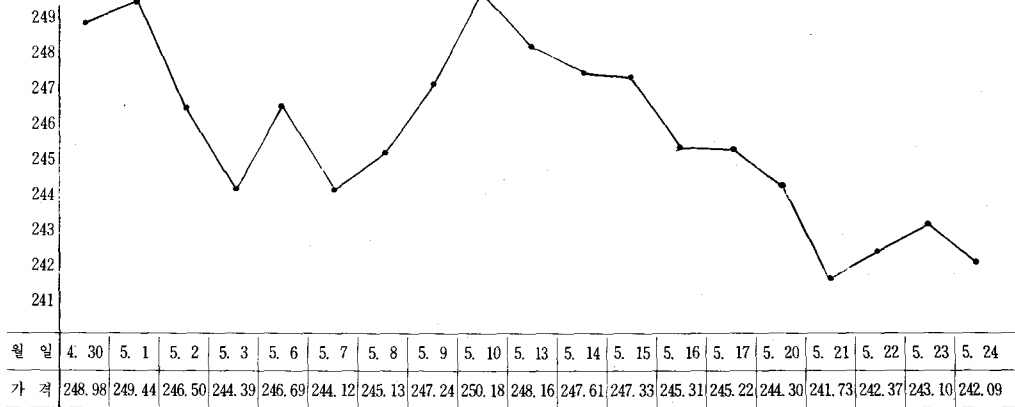
또한 호밀시세는 캐나다산이 C&F 톤당 가격으로 115불선으로 다소 떨어진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료용 소맥은 최근 호주산 Damaged Wheat

의 재고가 거의 소진된 가운데 호주 소맥위원회에서 ASW (Australian Standard Wheat) 선별과정에서 약 30만톤 가량의 사료용 소맥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는데 수출가격 기준은 C&F 톤당 129불선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호주산 사료용 소맥은 지금수준대로만 가격이 보장된다면 약 30만톤 가량의 생산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수준도 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 산 사료용 소맥은 C&F 톤당 가격으로 135불 수준으로 호주산에 비해 높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국산 타피오카는 1차 수입분이 이미 도착해서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측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태국정부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촉진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타피오카 펠렛의 1:1보너스제(One One Bonus)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타피오카 하드펠렛을 EC이외의 지역에 수출할 경우, 수출한 만큼의 물량을 EC쿼터에서 늘려주는 제도를 취해왔으나, 최근 EC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한국, 대만,

2. 대두시세



3. 대두박시세



일본 등에 수입되는 옥수수 가격은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최근 국제곡물시세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후 국제곡물시세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신곡출하시점인 10월경에 이르러 미국산 곡물시세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미농무성이 계획하고 있는 Export Bonus Program이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곡물시세는 안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한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도 후반기 배합사료 가격은 중공산 옥수수 가격의 상승, 호주산 사료용 소맥 및 타피오카 등의 강세현상으로 다소 불안한 면도 없지 않으나, 미국산 곡물시세가 앞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